**찬성 갑 입론**

타다 개정안 후 제동이 걸림

불법택시혐의, 무죄, 경찰의 항소결정

헌법소환

1. 개정안34조2항 이동권 침해
2. 특정 서비스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선택권)를 침해
3.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침해: 최소한의 국가적 개입이 아님

**반대 을 확인질문**

2. 카카오 모빌리티 등 혁신, 경쟁화 계기-> 많은 업체들이 생겨서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를 넓힘

: 개정안 자체는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 그러나 초점을 둔 것은 개정안 통과의 절차에 문제가 있음 차를 대여함에 있어서 특정 장소와 시간을 겨냥했기 때문에 타다 자체를 겨냥한 것, 이미 택시와의 경쟁구도가 있었는데 타다를 선택하지 못하게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한 것

타다금지법으로인해 오히려 거대 외국 자본으로부터 플랫폼을 막는 방패막이 될 것(뭔소리야)

: 기여금이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스러움

(시간부족)

**반대 갑 입론**

공유경제: 에어비엠비, 차량공유서비스

2018년10월 시작된 타다

1. 공유경제: 경제의 양극화 현상 등의 악역향
2. 불법 콜택시의 역할을 수행, 위법적
3. 지금의 타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등장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바로미터가 될 것,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이므로 기준이 필요하다

**찬성 을 확인질문**

1. 절감된 소비와 경제적 파급력, 택시기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외국 사례를 보면 우버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 일자리가 늘어나고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
2. 타다는 불법택시다: 타다1심판결문: 불법택시라는 논점에서 어긋난다

>>> 하던 일이 택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택시 면허 없이 택시일을 하는것과 같다

1. 타다금지법이 타다를 겨냥한 법이 아니다: 근거를 설명해달라

>>> 타다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 벅식(?) 다양한 플랫폼의 모빌리티사가 생김

(시간부족)

**찬성 병 반론**

반대측에서 자영업 택시기사의 경제적 피해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며 실제 영국의 사례에서도 우버가 생김에 따라 택시 외에 다른 일자리가 늘어남

불법 콜택시와 같다는 지적: 타다는 온라인, 택시는 오프라인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기존에 없었으며 법률 조항에도 없기 때문에 불법 콜택시라고 할 수 없다

타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 카카오 대자본의 대기업이다. 스타트업에게 불리하고 대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므로 경쟁구도가 없어짐. 대부분 신산업은 스타트업에서 시작되는데 이러면 신산업의 개혁이 없어지는 것

기존산업이 잘되고 있던 것은 인정함 하지만 신산업도 잘 되어야함

**반대 갑 확인질문**

스타트업의 작은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타다는 다음이라는 대기업에서 비롯된 서비스이다

신산업의 탄생을 막는다는 발언: 파파(?)는 타다 이후에 이루어진 기업인데 중소기업에서 비롯되었으나 잘 되고 있음

>>> 대리운전 서비스에 더 가깝다. 차량공유서비스가 아니라 법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대리운전 서비스이다.: 아님 렌터카를 이용해서 유상으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대리운전이 아님

**반대 병 반론**

서울은 택시 포화상태. 미국에서는 서울보다 인구대비 택시 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흥행할 수 있었음 현재 서울에서는 택시 감축사업을 시행중. 타다 서비스가 추가될경우 과포화인 서울의 교통상태에 악영향. 서울 한정 택시 신규면허를 중지하고있음. 타다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지역에서 했어야 맞다고 생각

카풀 서비스의 불안: 이용자 개인정보 노출, 기사의 신원 문제

여객운수법: 운전자의 신원을 알 수 있으나 타다의 경우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음

영국의 우버의 경우 기사의 신원과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중지함

**찬성 갑 확인질문**

서울의 택시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안됨: 타다같이 택시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단순히 택시가 많기 때문에 도입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 카카오택시는 고급 택시관련 서비스이다. 타다만큼 질좋은 서비스임, 택시운전면허를 가진 분이 운전하므로 위법사항이 없음

>>>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 방안: 택시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편 방안이 마련된 것 근데 거기의 문제점은 타다가 이미 해결하고있던사항(뭔소리야)

경제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함: 신산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구산업과 갈등할 수 있지만 구산업의 문제점을 발전하지 않은 채 신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옳은가?(같은내용아님?)

**반대 자유토론**

택시제도에 문제가 있어 개편방안이 나온것이다? 거기에 있던 택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 승차거부, 번잡한 시간대에 택시 수 부족, 기사의 노령화, 고객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총 택시 수가 많음, 정부의 규제가 많음

>>> 승차거부의 경우 타다의 등장이 신고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빡세진 것이 원인임. 처벌을 강화했음: 구산업 택시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고있다는 것

>>> 승차거부에 관한 얘기만 하고있는데, 타다는 승차거부 뿐만 아니라 차량이 넓고 쾌적하고 운전기사가 말을 안거는 등 만족도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이 있음

>>> 대답못하고잇음

택시에서도 범죄가 발생한다? 하지만 중국 우버에서 성폭행등의 사고 발생. 타다의경우 운전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음 채팅방 성희롱사건

>>> 논점이 어긋남.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택시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타다에서 운전기사를 뽑는 조건

>>> 찬성측에서도 승개귿ㄹ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증된 운전자를 고용해야할 ㅣㅍㄹ요성이 있다고 인정함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고 타다가 가지고있는 장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무조건적으로 신산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구산업의 단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함.

>>> 타다와 택시는 아예 플랫폼 자체가 다름. 구산업 신산업으로 따질 수 없다, 타다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이므로 공유경제와 시장경제가 합쳐진 사업임. 따라서 기존산업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타다의 택시에 비한 이점은 확실함. 구산업의 발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신산업의 무조건적인 배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구산업의 발전 방향은 결국 신산업과 같음

**찬성 을 반론**

타다를 겨냥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 아님. 겨냥한거 맞음

스타트업의 예: 예외조항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임. 타다와 결이 다른 서비스

서울 중앙지법 타다 1심 판결문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있는가? 타다서비스는 초단기승합차 임대로 확장할 수 있고 여객을 운송하는웅앵의효과를 줬다고 할 수 없음

반대 을 반론

택시의 생존권

오히려 해외의 운송업체들의 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국내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

다

찬성 병 최종발언

대답못한거 지적 체제를 완전히 변화하기 힘들다. 새로운 것은 기존의 것과 충돌하고 공존하다가 변화됨. 발전시켜야됨. 택시제도개편내용은 이미 타다측에서 제공하고있던 것이고, 택시가 타다를 겨냥하여 개정한 것은 명백함. 소비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피력되지 못한것이므로 소비자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잇음, 대기업의 기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 연결성: 산업간의경제를넘나드는일이므로 기존산업과의 충돌은 불가피한데 이를 받아들이지못하고 안정성만을 추구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

반대 병 최종발언

공존을 이유로 기존 산업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음

서울시의 교통 혼잡

타다는 애초에 불법이었음

확인질문은 점점 향상되기를 희망함.

단문으로 가는게 좋음. 발언 단위를 짧게 가져야함 이게 맞나요? 하는식으로

개방형질문, 역질문을 하면 안됨. 확인질문을 하는 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는 것은 주도권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임. 개방형 질문은 자제해야함. 자신이 답변을 해야 할 차례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초보적인 확인 질문임

확인질문은 다음의 발언, 자유토론에 쓰기 위해 간직하는 것임. 다음의 주장을 하기 위한 예비상태.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님. 입론이나 반론의 기회로 써버리면 좋지 못함.